

哲學과 人生을 읽고

韓 稚 振 氏 께

裴相河

一

一九二八年度 朝鮮之光 三四月號에 실린 氏의 옛세이 「哲學과 人生」-設畧 그것이 그릇된 思索의 紀錄이라 하드래도(아직 疑問이지만) 또는 西洋流 그 냥의 直輸入이라 하드래도 (이도 疑問이다) 如何든 우리말로 우리 사람이 우리 文壇에 부르짖는 그 소리의 動機만을 나는 是非의 눈을 써서 該作의 Wirkung의 如何를 돌아볼 사히도 업시 貴업다 한다

× × ×

나는 韓氏를 몰은다. 換言하면 그가 엇저한 사람인지 어느 곳에 사는지 무 얼하는 사람인지 卽 그의 外的 生活을 몰은다. 그리고 알 必要도 업는 것이 다. 그러나 「哲學과 人生」이 그의 속임업는 부르짖음을 밋으면서 나는 그 가 朝鮮사람이며 熱烈한 Eros Zur Wisse[n]shaft 에 타는 學徒임을 알고 짜라서 그의 思索生活 卽 內的生活 다시 말하면 그의 Innere Dualin을 잘안 다고 해도 無妨할것이다 그럼으로 아직 自身の 充足을 엇지 못하엿슴으로 나 自身을 外的으로 들어내는 것을 붓쓰러워하는 나로써 굿타여 나 안이래 도 할 사람이 만을 것을 唐突한 評言의 몇마디를 쓰게되니 이 쓰게된 根據 는 單只 나는 「哲學과 人生」이란 論文과 因緣이 있다는 것(다음말하겠지만) 그의 內의 生活을 잘 알았다는 것 이 두 가지에 있다.

二

나와 「哲學과 人生」 사히에 因緣이 있다는 것은 내가 五六個月 前에 이와 꼭 갖튼 題目하래 써 둔 論文이 잇는 짜답이다. 아직 發表는 안했스니 이는 偶然한 一致가 또 一致性을 가질만한 平凡하고도 구수한 題目이다 -내가 이 題目을 췌스니까 구수하다고 自矜하는 것이 안이라 事實인즉 그러탄 말-

그리고 眞理는 自明이라야 하니 自明인 以上 眞理는 平凡하다고 나는 생 각한다. 그러나 그 眞理를 알고 난 뒤에야 비로소 그것이 平凡化라도 하겠지

만은 마치 鷄卵을 세운다는 것이 알고 보면 쉽지만은 몰으면 到底히 凡人으로는 企及도 못할만케 이리 유일인 것 갖치 그 眞理를 알기까지는 非常한 探索과 努力이 原因함을 吾人は 잘 안다. 그럼으로 「哲學과 人生」이란 이 題目이 아모 新奇한 感興도 주지 못하는 常套語로 돼 「哲學」이란 것이 알기 어려움 큰 問題이며, 또한 「人生」이란 것도 모-든 人生을 괴로워해 온 難題인以上 이 두 難問을 「과」로써 連結한 「哲學과 人生」이야 말로 이우에 덩플 것업는 크나크고 어려우나 어려운 最大 問題라고 하겠다. 그럼으로 哲學家는 哲學的 入場에서 宗教家は 宗教的 入場에서 科學者는 科學的 入場에서 詩人은 詩的 入場에서 凡人은 凡人답게 超人은 超人답게 哲學이 指示하는 넓은 曠野와 人生이란 것이 엮고 잇는 만흔 險山 속에서 알길을 차즈리고 努力했 쓰며 努力하고 또 努力하겠쓰니 그내들의 探索方法이야말로 千態萬相을 일우고 있다. 或은 唯物論으로 或은 唯心論으로 或은 目的觀 或은 機械觀으로 或은 Philosophia(愛知)라는 語句的 解釋으로 或은 哲學은 科學의 總括이란 統括的解釋으로 或은 Ancilla theologiae 라는 宗教萬能主義로 或은 宗教의 批判이라는 哲學優越感으로 或은 厭世觀 或은 樂觀主義로-이모-든 方法과 解釋이 오로지 아지 못할 「哲學」「人生」의 鐵門에 부딪치면서 알려고 애쓰고 발부둥치는 모-든 哲學家(넓은 意味로)의 에타는 부르지즘이다. 이럼으로 「哲學과 人生」이란 取題는 너무나 큰 企圖이다. 그러나 또한 哲學에 對한 不滿 人生에 對한 疑感을 가진 어느 누구의 가슴서라도 몇 번이나 몇번이나 울어나야 할 소리다. 哲學의 由路가 그윽하고 人生의 解決鍵이 그리 쉬이 잡히지 아니 하나니 氏가 말한 內容과 同題 下에 써둔 내 것의 內容과의 사히에 만든 相價點이 잇스면서도 根本 論點에서 東西로 난히고만 두 拋物線을 일운것도 그 原因이 사람의 知力이란 到底히 完全한 解釋을 엇지 못한다는 運命이있다. 그것치만 우리는 엇선 哲學者의 말, 「우리는 生의 原因 卽 Why? 를 알 必要가 업다 萬若 이 Why 를 完全히 對答할 수 잇슬 쟈는 우리는 살지못할것이다, 왜 그리냐 하면 生의 原因을 알면 사람은 사람이안이다. 神이다 涅槃極樂의 住民이다. 그리고 極樂의 生活은 現世의 삶이 안인 짜답이다. 그럼으로 生을 맞은 우리로써는 엇저케 하면 더 잘 살까 卽 How? 를 알려고힘써야 할것이다」로써 滿足할 수는 업다 How 는 弱者의 避難所이다. Why 를 알게 될 쟈 現世가 極樂이 돼서 우리의 現世의 삶히 斷絶되든, 쟈는 到底히 알수 업는 것이든 如何튼 根源點 卽 Why 를 알려고 애쓰는 것이 理性을 가진 우리네의 形而上學的 要求이며, 또한 達치 못할 目的에 向한 無限의努力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生을 肯定할 수 잇슬 것이다. 百메-틀 競走者의게 무슨 生의 倦怠가 잇겠느냐? 그럼으로 吾人は 「哲學과 人

生」이란 取題를 首肯하고싶다.

그러면 氏의 根本 論點이 무엇이든가 내 것의 根本 論點이 무엇이든가 이것이 다음의 問題이며, 또한 拙論의 根本論點이다. 勿論 그의 主觀과 나의主觀을 比較한다는 것은 일으는 바 客觀的 立場에서 볼 때 그리 만흔 價値를 갖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치만은 These는 Antithese을 낮코 여기서 Synthese가 생긴다는 헤-겔的 立場에서 氏의 것을 These로 내 것을 Antithese로 그리하여 Synthese를 만들기 爲해서 나는 다음 그의 論據와 나의 그것과의 比較論을 세우겠다.

먼저 그의 根本 論點이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그가 무엇을 主張했나 적어도 무엇을 暗示하도했나? 이는 일의 對答하기 어렵다. 왜 그러나 하면 내 頭腦의 不明哲도 그 한 原因이겠지만은 大體로 그의 論述이 너무나 太平的 換言하면 너무나 平凡하였든 까닭에 어느 곳에 그의 論述의 重心이 있난지 일른 차저내기에 괴로웠었다. 더 甚히 말할것 갖트면 그의 엷세이가 哲學 概說的 講話의 一部만을 去頭截尾해서 갖다논 것 갖튼 感이 업지 안엇섯다고 도할 수 있다. 「哲學의 意義」「哲學에 對한 誤解와 闡明」으로 始作하여 「唯物論의 反駁」「데카-트의 나」로써 맞친 그의 「哲學과 人生」 속에는 或은 코피니 크쓰가 나오고 스피노자, 칸트 등이 나오고 헤-겔(해겔이라고 쓴 것은 그의 不注意인가)이 나오고, 或은 톨쓰토이가 나오고 키플링의 말을 빌고 타레-쓰(thales 624- 564or548 B.C. (그는 이것을 테일이 쓰라고 發表 했쓰니印刷의 허물인가) 의 이야기가 있고, 其他 無慮數十餘 名의 哲學家 科學者 詩人 등을 網羅한 그 中間에 連結되어 있는 一貫한 생각을 看取하기에는 너무나 눈이 眩煌했다는 感도 업지안타. 그만큼 氏의 論述은 多技的이고 多技的인 만큼 中心과 邊□의 抑揚調節에 失敗했스니 簡單하게 말하면 왜 더 똑똑히 根本主張을 主張답게 主張했든가 하는 것이다. 그럼으로 나는 겨우야 몇 번이나 躊躇하면서 그의 論述의 焦點은 「哲學은 生活의 批判이다」의 一句에 要約해 잇슴을 發見했다 「哲學과 人生」이란 題目이 담은 內容의 中心은 勿論 「哲學」「人生」의 運結 相關的 交涉 卽 關係에 잇슬 것이니 生活이란것을 擴張한 意味로 人生이라 할 것 갖트면 「哲學은 生活의 批判이다」以外에 그의 中心을 發見하지는 못 할 것이다. 氏는 이를 肯定할는지 不定할는지? 肯定한다면 두 말이 업슬 것이고, 不定한다면 무슨 理由로던지 거기 對한 論駁은 다음일이다. 干先나쁜은 그의 中心을 「哲學은 生活의 批判이다」로 確認하고 이것으로 나의 論駁의 出發點과 批判點을 삼는다.

「哲學은 生活의 批判이다」라는 Satz (日本語로는 命題라고 釋하되 우리말로는 句라고 했쓰면)는 한 번 들을 때 神奇롭고 두 번 들을 때 神道고 세 번

들을 쟁 疑心나고 네 번 들닐새 否定되고 말듯한 句다- 그 理由는 다음과 같다

이 句를 分析해 볼 것갓 트면 哲學의 作用은 批判이다. 그리고 이 批判의 對象은 生活이다. 라고 델 것이니 哲學의 作用은 批判이란 것은 구타여 韓氏의 입을 빌지안 이도 칸트의 批判哲學이 먼침 말하고 있다. 그럼으로 여기 對해서는 何等 反論이 업슬 것이니, 萬若「哲學의 作用은 批判이다」를 反駁할려면 칸트의 批判哲學부터 打破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다음 批判의 對象은 生活이다에 對해서는 輕率히 肯否定 못 할 問題라고 하겟다. 왜 그러야 하면 이 句는 客觀必然性을 갖지 못했스니 西洋哲學史上 古代의 一部 特히 中世에는 哲學의 興味와 對象이 純全히 生活이란 것에 限했스되 古代의 一部와 中世만이 哲學史의 全部가 안인 以上 換言하면 哲學의 主要한 對象이 生活에서 쟈나간 時代가 잇슴을 哲學史가 잘 表示해 주는 以上 이 句는 客觀必然性을 갖지 못한단 말이다. 勿論 삶을 쟈나선 卽 生活이란 것을 쟈나서는 藝術도 업슬 것이고, 科學도 업슬 것이고 哲學도 생기지 안을 것이다. 그러나 이 生活이야 말로 最大 限度까지 擴張된 意味의 生活이니 나라고 해도 조홀 것이다. 나를 쟈나서는 모-든 것이 虛無다 나와 生活- 그 사이에는 아모리 생각해도 意味의 階級이 업지 안을것이니 Durkheim 이 말한 바 生活은 社會制度를 낫다 그것치만 來終에는 社會制度가 生活을 움직인다고와 갖치 나의 삶을 쟈나서는 勿論 아-모것도 업다 그래도 보라 Art for art 가 잇고 Philosophie der wissenschaftslehre 가 잇지 안은가 學的思索에 沈潛할 쟈 藝術의 王國에 逍遙할 쟈 거기는 벌서 生活을 超越한 그네들만의 特殊境이 잇지 안은가? 그래도 구타여 生活을 쟈나서는 一切가 無, 換言하면 韓氏와 갖치 哲學은 生活의 批判이겟느냐? 모-든 것이 나를 쟈나 업슬진댄 宇宙의 萬象이 生活의 批判일 것이 안인가? 여기서 더 좀 沈着히 群細히 觀察할 것갓 트면 「哲學은 生活의 批判이다」가 獨斷이나 眞理냐에서 問題는 始作될 것이니 萬若 이것이 眞理라면 眞理의 特性인 客觀必然性을 가져야 하고 客觀必然性을 가진다면 時間, 空間을 超越한 Qultigkeit (日本語로 妥當性이라 하되 우리말론 僻서 둘 다 適合性이라 할까) 를 가져야 할 것이니 이 句는 擴張돼야 「過去의 모-든 哲學은 生活의 批判이엇섯다 現代의 모-든 哲學도 未來의 모-든 哲學도 生活의 批判이다」라고 될 것이다. 論理上 必然的으로 如斯히 擴張될 것이니 韓氏도 여기엔 아무런 異議가 업슬것이다. 異議가 잇다면 그것은 自己 矛盾이다. 여기서 나는 韓氏의 根本論點인 이 擴張된 句를 反駁하기 爲하여 哲學史의 힘을 빌지 안으면 안되겟다. 哲學史上 (西洋만을 例로든다) 過去라면 現代 以前の 모-든 時代를 말함이니 古代 中世 近世로

三大別 될것이고 古代라고 해도 西曆紀元前 七, 八世紀의 原始的 哲學思想 (Homeros, Hesiodos, Solou, Thegnis, Pindaros 等の 詩人들이 活躍한 時代)이 있고 그 다음 創始時代, 組成時代, 希臘羅馬時代를 지나서 中世로 드나니 十五世紀 間이란 진 中世에서 묵어난 哲學은 近世에서 데카-트 흠 칸트 헤-겔 等を 낫코 다시 新칸트派 獨塊學派 現象學 等으로 現代에 르렀다 그 間約 二十八世紀란 기나긴 歲月을 包含한 過去이다. 果然 이 過 二十八世紀 間에 일어난 모-든 哲學思想이 韓氏가 말한 것 갖치 生活의 批判이 었든가? 이는 내가 反駁할 것도 업시 쪽々한 哲學史 한 卷만 넓으면 自然알게될 妄信이다 大體로 哲學의 興味가 單純히 삶이란 焦點에만 向해 잇는 中世에는 韓氏의 論述이 適合할줄 밋으며 生活과 接觸해서 닐어나는 □異는 思想의 動搖 卽 疑惑을 낫코 疑惑은 探索熱을 喚起하며 探索은 眞理로 向하나니 이러한 過程이 學的 思素의 經路인 以上 氏의 原始哲學의 發生은 生活上 疑訝에 잇다는 말은 肯定할만 하되 換言하면 氏의 論述이 大體로 봐서 中世와 原始 及 古代의 一部分에 適合하겠스되, 哲學의 興味가 漸次 形而上學 (形而上學은 生活에서 올어난다)에서 認識論으로 推移하게 된 近世에는 到底히 適合할 수 업고, 그리고 現代의 哲學이 生活의 批判이 안닌 以上 卽 다시 말하면 그의 判斷이 普遍性을 갖지 못한 以上 未來의 如何도 推測할수는 업다. 原始는 原始고 古代의 一部分은 古代의 一部分 中世 는中世지 決코 哲學史의 全部가 안니다. 그럼으로 上記한 韓氏의 句는 哲學史上 部分的 時代에만 適合할 것이지, 決코 모-든時代에 適合할 普性을 가지지 못한다. 「哲學은 生活의批判이다」라는 Allgemeine Urteile는 「어느 時代의 哲學은 生活의 批判이다」라는 Besondere 로 變하지 안는 以上, 그것은 容恕할 수 업는 獨斷이다. 氏는 批判을 불으지즈면서 獨斷을 보이고 잇다. 도리혀 氏 自身の 論理上 批判을 바란다.

三

思想의 童謠와 人間의 齎力을 깨다른 者는 依據를 求한다. 宗教를 갖는다. 物情의 異當과 狀態의 流情에 눈썸 者는 統一을 求한다. 哲學을 갖는다. 人間 智力에 無限한 權能을 許하고 잇는 輕躁하고 皮相的인 現代人이 얼마나 非宗教的인가? 삶을 찾는 것 보담 삶에 쫓기고 잇는 얕미웁고 암상스런 現代人이 얼마나 非哲學的인가 그들은 밥을 달라고 불으지졌다. 그러나 드되여 밥은 었지 못했다. 그들은 내말만이 올xk고 썬들었다 그러나 한낫 實果를 었지 못했다. 紛爭을 즐기고 相克을 조와하는 現代人의게 무슨 深刻한 哲學이잇스라 무슨 徹底한 宗教가 잇스라 나는 現代만을 咀呪한다 現代-思想의 危機다.

現代人- 下等動物化의 急傾斜를 加連 도로 굴러 썩러지는 五臟심치 못한 무리들

現代의 哲學- 末梢 哲學이다. 枝葉 哲學이다. 칸트가 멘든 認識論鐵鋼 속에서 認識論만이야 모-든 學問의 根本이란 假裝을 하고 잇는 그 實相은 아무런 思想의 童謠도 鎮定 식히지 못하며 아무런 타는 목도 적시 주지 못하는 末本顛倒의 認識論 萬能哲學이다. 칸트를 哲學의 코피니크쓰라 한다 그러나 이 榮譽는 그의 認識論 때문이다. 哲學의 根本意義를 깨닫지 못하고 안니 自己네들 便宜대로 根本意義를 變吏해 버리려는 現代의 哲學家의 大部分은 一에도 認識論 紛爭 二에도 認識論 紛爭의 役士들이다. 五六個月 前에 내가 써둔 「哲學과 人生」속에 나는 이런 말을 써둔 것을 記憶한다

「現代는 哲學의 危機다 哲學이 思想의 밥이라면 勿論 밥얻으려면은 엇는 手段方法도 생각해야겠지만은 現代哲學이야말로 밥 求할 方法만 생각하고 平生 한 술 밥도 엇지 못하고 잇다 哲學의 目的은 思想의 밥을 찾는데 잇다 그리고 認識論은 밥엇는 手段이다. 認識論만 研究하는 大部分의 現代 哲學家들은 밥 한 그릇 못 엇어 먹는 비런뱅이다. 이점에서 나는 헤-겔의 弟子이다. 빈델반드는 “Was ist philosophie”란 論文에서 批判哲學을 主張하고 잇다 그러나 우리의 問題는 Was ist philosophie (哲學은 무엇이냐)가 안니다 過去의 哲學이 무엇이든 現代의 哲學이 엇져튼 우리의 問題는 ”Was soll philosophie sein” (哲學은 무엇이러야 되겠나)이야겟다. sein이 sollen으로 變하여야겟다 果然 現代 哲學의 中心은 認識論이다. 우리는 認識論만에 滿足을엇지 못하나니 더 徹底히 生の 哲學을 세워야겟다……」

그럼으로 現代의 哲學은 韓氏가 말한 것 갓치 그리 쉬이 生活의 批判은 안이다. 現代에 旺盛한 Wissenschaftslehre는 그냥 그대로 Lebensphilosophie는 안인 것이다. 「哲學은 生活의 批判이다」라는 癖도 魅惑的인 結論이 이곳 널니 觀察치 못한데서 獨斷이 되고 말엇다. 氏가 말한 바와 갓치 現代의 哲學이 生活의 批判일것 갓튼면 오작이나 조흐랴! 나는 生活批判의 哲學이 現代哲學의 根本 潮流되기를 熱々히 期待한다 그렇지만 現實은 現實이고 理想은 理想이며 sein은 sein이고 sollen은 sollen이니 生活批判이 안닌 現代哲學을 生活의 批判이라고 獨斷한데 크나큰 現實과 理想의 Verwescheiung을 일우엇다. 希望을 갑작스리 現狀이라고 獨斷헛다 그러나 이 갓튼 論理의 矛盾 事實上 不適合은 姑會하고 그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이다지 接近해 잇슴을 甯길 쎄 나는 두 손을 들어 그의 부르지즘을 반기여섯다. 그럼으로 나는 그의 結論「哲學은 生活의 批判이다」라는 現實에 對한 獨斷을 「哲學은 生活의 批判이러야겟다」라는 理想에 對한 當爲로 곳치고 심

다 그리고 이 實現돼야 할 理想이다. 氏는 肯定할는지?

四

以上으로 나는 本論을 맞친다 그의 根本論點이 矛盾인 以上 其他 諸點에
는 言及하지 안켓다.

(附記) 이곳에 「哲學」이라는 廣義의 哲學 卽 心理學, 社會科學 等を 包含
한 것이 안이다 狹義 卽 適確한 意味로 純粹哲學을 말함이다. 韓氏의 □□
도 이것들을 밋는다-(웃)-

一九二八·四·二九